

“조선 전기 왕실 출가녀는 불교 수호자”

황인규 교수 한국불교학회 학술대회서 발표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국시(國是)로 불교를 억압하는 시책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승유역불로 표현되던 조선시대 동안 불교는 도심지에서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산중불교 시대'였다.

하지만 산중불교시대에도 도성에서의 왕실불교가 없어진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특히 왕실녀들의 저지 않은 불교신행활동이 그러했다.

황인규 동국대 교수는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가 4월 10일 개최한 제51회 전국불교학술회에서 '조선전기 왕실녀의 가계와 비구니 출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황인규 교수는 "조선시대의 왕실녀 출신의 비구니들은 정업원과 후궁을 중심으로 왕실불교의 주축을 이루면서 조선불교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성리학적 예제(禮制)가 조선 중기이후에 정착됐다"고 주장했다.

황인규 교수는 "조선 전기에는 왕후, 후궁, 공주, 왕자군의 부인들이 정업원에 출가하거나 후궁에 머물면서 신행활동은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며 "국가시책과는 달리 사후의 세계에 대한 추념을 불교가 담당했기 때문에 능침(陵寢) 사찰의 운용과 더불어 도성 궁궐에서도 정업원과 인수궁·자수궁 등의 후궁에서는 왕실녀의 불교신행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조선 전기에 걸쳐 나타

난 왕실녀의 비구니 출가를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정종·세종·성종대로 구분해 각 시대의 비구니 출가 사실을 조명했다.

태조 이성계의 셋째 딸인 경순공주(?~1407)는 1392년 개국공신 흥안군 이세에게 출가했다.

이제는 개국원훈으로 전주 이씨 성을 하사받는 등 공주의 부마로 예우를 받지만, 태조 7년인 1398년에 왕위계승권을 둘러싼 '제1차 왕자의 난'으로 태조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공주의 어머니 신덕왕후가 죽은 지 2년 후의 일이었다.

황인규 교수는 "당시 공주는 몇 년 사이에 어머니와 두 동생·남편의 잇따른 죽음을 지켜봐야했고 그 직후 출가해 비구니가 됐다"며 "경순공주의 비구니 출가는 율케인의 안대군 방석 처 심씨의 출가와 더불어 조선 건국 초 왕실녀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정치적 암투에서 사망하는 막내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부득



황인규 교수는 4월 10일 전국불교학술회에서 "왕실 출신 여인들과 비구니들의 신행활동이 성리학적 예제를 조선전기 이후에야 정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청릉사 내 정업원 비각. 사진=박재원 기자

이한 태조의 조치였을 것이며, 태조의 불교신행과 그 시책의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해석했다.

왕실녀의 비구니 출가와 더불어 후궁들의 출가는 태조 이후 조선전기 무렵까지 왕의 사후에 계속됐다.

황 교수는 "세종 4년인 1422년 태왕이 죽자 이를 비판한 후궁들은 세종에게도 고하지 않고 버리를 꾀고 비구니가 됐다. 다른 후궁들도 이를 본받아 앞을 닦아 버리를 꾀었다"며 "태종의 후궁 9명 중 출가한 비구니는 3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1397~1450)이 임종한 직후에는 후궁 10여 명이 한꺼번에 비구니로 출가하기도 했다.

왕후가 비구니로 출가한 사례도 있었다.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였

으로 강봉, 정순왕후도 노산군부인으로 강봉됐다.

황 교수는 "이 때 노산군 부인은 세종이 내리준 집을 마다하고 따로 청릉사 곁에 초가를 짓고 스스로 정업원 주지라고 칭했다"며 "정업원은 공식화된 비구니 도량이었고 작어도 왕실의 시책과 가까이 하는 자가 주지에 내정됐을 것이다. 노산군 부인이 정업원에 머무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궐 밖에 거거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종의 죽을 직후 중종대 무렵까지 후궁의 출가는 계속됐다.

황인규 교수는 "왕실여인들은 죽을 때까지 모셔야 하는 왕의 임종 후 출가이나 개가가 허용되지 않은 제

씨 몸과 마음이 경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민감해지는데 이것은 진리에 도달하는 중요한 힘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것을 "우리 자신을 구속하는 내면 경험의 흔적을 제거함으로써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번거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얻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경 스님은 달마 대사와 혜가 스님의 안심법문을 예로 "안심법문의 가르침에는 벽관의 실천과 연기법의 자각, 그리고 반야공의 지혜가 녹아들어있다"며 "달마와 혜가의 안심법문은 단순한 심리적 치료로서의 종교성을 띠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의 실천적 좌선의 본질적인 의미도 그 속에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보리달마의 안심사상에는 종교의 본질적 요소와 중국불교의 교학체제, 인도의 실천수행법인 선의 사상이 살아있다.

스님은 "안심입명이란 안심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임명인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는 삶이다. 근본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수행에 철저한 것이요, 대승불교의 견지에서는 보살의 실천"이라며 "반야공(般若空)과 '삼매(三昧·정·定)' 그리고 '안심(安心)'은 사용되는 장소와 용법이 다를 뿐이지 선불교에서의 실질적인 체험의 과정에서는 같은 의미로 귀결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수상에 최선일 박사, 학술상에 김용태·이병욱·원혜영 박사(무술)이 선정됐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4월 12일 이같이 발표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 및 논문 발표회는 6월 중 개최된다.

최선일 박사(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는 연구주제 '17세기 후반 조각상 승호(勝浩)의 활동과 불상 연구'로 선정됐다.

선리연구원은 "조각상 승호(勝浩)를 중심으로 한 그 유파의 조각 양식과 그 변화 등에 대한 고찰은 한국불교미술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문헌 기록 등을 기초로 한 연구방법론은 조선 후기 불교계의 동향까지 살필 수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학술상에 선정된 김용태 박사

이어나 기자

원혜영 박사(대진대 철학과 외래교수)의 '마라(Mara)의 악몽'에 대해서는 문화원형의 측면에서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원혜영 박사(대진대 철학과 외래교수)의 '마라(Mara)의 악몽'에 대해서는 문화원형의 측면에서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원혜영 박사(대진대 철학과 외래교수)의 '마라(Mara)의 악몽'에 대해서는 문화원형의 측면에서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원혜영 박사(대진대 철학과 외래교수)의 '마라(Mara)의 악몽'에 대해서는 문화원형의 측면에서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학술상에 선정된 김용태 박사

이어나 기자

선리연구원 학술상 최선일 박사

김용태·이병욱·원혜영 선정



최선일 김용태 이병욱 원혜영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우수상에 최선일 박사, 학술상에 김용태·이병욱·원혜영 박사(무술)이 선정됐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4월 12일 이같이 발표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 및 논문 발표회는 6월 중 개최된다.

최선일 박사(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는 연구주제 '17세기 후반 조각상 승호(勝浩)의 활동과 불상 연구'로 선정됐다.

선리연구원은 "조각상 승호(勝浩)를 중심으로 한 그 유파의 조각 양식과 그 변화 등에 대한 고찰은 한국불교미술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문헌 기록 등을 기초로 한 연구방법론은 조선 후기 불교계의 동향까지 살필 수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학술상에 선정된 김용태 박사

이어나 기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의 '한국불교의 종명(宗名)과 종조론(宗祖論)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종조(宗祖) 규명이 아닌 종명(宗名)의 변천과정과 당위성을 검토하고자 한 점에서 연구내용이나 방법론이 돋보였다.

이병욱 박사(고려대 철학과 외래교수)의 '천태의 사상과 원효의 사상의 공통점 연구'는 천태 지의와 원효의 사상을 비교해 특별한 교섭과정이나 양자의 유사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 한·중불교의 단절적 시각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불교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원혜영 박사(대진대 철학과 외래교수)의 '마라(Mara)의 악몽'에 대해서는 문화원형의 측면에서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학술상에 선정된 김용태 박사

이어나 기자

인도철학회 23일 불전번역 학술대회

유럽 산스크리트 사본 연구 현황 등 포함

인도철학회(회장 서행정)는 4월 23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불전번역의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주제로 제30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대회는 유럽의 산스크리트 사본 연구 현황과 한역 불전번역에 있어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음역에 대한 연구 내용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동국대 정승석 교수가 이끌고 있는 '범어음역 한자어의 의미체계 심화연구' 프로젝트의 발표가 눈길을 끈다.

정승석 교수는 '범어음(梵語)의 원어 축약 사례'를 주제로 고려대장경에 입장된 대표적 범어 어휘집인 '범어어'에서 나열하고 있는 어휘

와 원어를 고찰한다. 정 교수는 초기에 제작된 '범어어'가 원어를 축약한 잘못 음역한 사례가 있음을 발표해 제격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전문 학자들은 △한역 <중어함경> 상당 산스크리트 사본 잔여물 조사 현황과 전망-정진일(독일 괴팅겐 학술원) △<아미타경>대조 연구-최종남(중앙승가대) △철학용어의 의미 만들기-강성룡(서울대) △몽골어의 음역의 난맥상 분석-김미숙(동국대) △비구(比丘)와 필주(佛耆·비구)를 둘러싼 불리아어와 범어의 다양한 뉘앙스-황순일(동국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나 기자

“보리달마 안심사상에 교리·수행 함축”

보조사상연구원 월례학술대회서 모경 스님 발표

혜가 스님은 달마 대사에 "스님, 저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달마 대사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시오. 그러면 편안하게 해 주겠소"라고 대답했다. 혜가 스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마음으로 마음을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달마 대사는 "그대의 마음은 이미 편안해 졌다"고 말했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4월 17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제90차 정기 월례학술대회에서 모경 스님(동국대 박사과정)은 '보리달마와 대승 안심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모경 스님은 "부처님·보리달마 등 역대조사들의 수많은 가르침 모두가 안심입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보리달마의 안심사상은 중국불교 교학의 핵심인 반야사상을 중심으로 증생들에게 '안심입명

(安心立命)'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고 말했다. 안심입명은 여타 교학사상을 아우르고 번잡한 불교수행의 체계를 단순화 시킨 부처님이 전하고자 했던 본질이었다는 설명이다.

모경 스님은 "인간의 마음은 사고 작용이고 사고는 기억의 반응이며, 기억의 반응은 다름 아닌 내면 경험의 표출이다. 마음이란 바로 내면 경험의 표출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선정이나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경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민감해지는데 이것은 진리에 도달하는 중요한 힘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것을 "우리 자신을 구속하는 내면 경험의 흔적을 제거함으로써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번거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얻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경 스님은 달마 대사와 혜가 스님의 안심법문을 예로 "안심법문의 가르침에는 벽관의 실천과 연기법의 자각, 그리고 반야공의 지혜가 녹아들어있다"며 "달마와 혜가의 안심법문은 단순한 심리적 치료로서의 종교성을 띠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의 실천적 좌선의 본질적인 의미도 그 속에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보리달마의 안심사상에는 종교의 본질적 요소와 중국불교의 교학체제, 인도의 실천수행법인 선의 사상이 살아있다.

스님은 "안심입명이란 안심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임명인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는 삶이다. 근본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수행에 철저한 것이요, 대승불교의 견지에서는 보살의 실천"이라며 "반야공(般若空)과 '삼매(三昧·정·定)' 그리고 '안심(安心)'은 사용되는 장소와 용법이 다를 뿐이지 선불교에서의 실질적인 체험의 과정에서는 같은 의미로 귀결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불교 자주 실천운동을 위한 대중결사(大衆結社)를 선언하며

우리는 현 상황을 오만한 정치권력의 불교 능멸과 자주성 침탈사태로 규정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과거회귀적인 정치권력의 행태로 인해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붕괴사 주지 명진 스님의 범죄 발언 등을 통해서 드러난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씨의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이며 위압적인 쭈커가 아닐 수 없다. 현 집권세력의 핵심부가 불교에 대한 현행헌 사고와 오만한 태도로서 종교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불교를 능멸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이를 불교 자주성에 대한 침탈행위로 규정하며,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안상수 씨의 정계은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

현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정치인 안상수 씨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강남 부자 집의 좌파 주지를 그냥 놔둘 수 없다' 운운하면서 불교계 내부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종단의 자주성을 침해했다. 우리 불자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가 무조건 정계를 떠나야 하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밝힌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와 우려를 무릅쓴 채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국민 비열적 종교편향 정책 등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 정권의 오만한 국정운영 태도에 서로 다른 책임을 지되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계는 물론 전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참회와 종단의 개혁정신 회복을 촉구한다.

우리 불자들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1994년 사부대중의 주체적 노력으로 일컫는 소중환 종단개혁의 정신이 실종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86년 해인사 승려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불교 자주를 위해 사부대중은 각고의 성찰과 부단한 실천운동을 전개했다. 1994년에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낸 종단개혁은 우리 현대 불교사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안으로는 굴욕적인 정치예속의 고리를 끊어 종단을 바로 세우고, 밖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의 등불로 삼아 국민과 사회의 희망이 되고자 하였다. 우리 불자들은 이 개혁불사로 인해 종단이 우리 사회의 나이아갈 길을 밝히는 정법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국가권력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자로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지지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개혁불사의 정신이 퇴색되고 오히려어가는 현실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다. 종단의 지도자들이 '종단발전'을 내세워 물질적·외형적 성장에 치중된 '불사'를 만들어서, 국가권력과 밀착에서 아합해 자주성을 핏겨치고 실리를 쟁기려는 '정치적 거래'를 서슴치 않고있는 행태가 이번 사태를 야기하였다는 일각의 지적을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들은 뺏속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불교의 자주성 훼손에 대한 종단적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 아울러 조계종단은 94년 개혁불사의 정신을 회복하는 선언과 그 실천지침을 엄밀하게 만들어 전명할 것을 촉구한다.

불교 자주성 수호와 종단 개혁정신 회복을 위한 '불교 자주 실천운동'을 선언한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과거회귀적인 이념논쟁이나 반민주적인 정치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만큼 성숙했다. 불교계 또한 소수의 '대불정지승'에 의해 자주성이 훼손되면서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굴욕의 길로 회귀하는 것을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우리 불자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불교에 대한 자존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국의 우려스러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오만한불손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침탈당한 불교의 자주성을 수호하고, 정치예속을 끊고 종단을 바로 세우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고자 했던 1994년 종단개혁불사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교 자주 실천운동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안상수 씨는 정계를 은퇴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현 정권의 종교편향과 불교 자주성 훼손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참회하라.

하나. 종단은 종단개혁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지침을 제시하라.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치서 천만 불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불교 자주 실천운동에 응명정진할 것을 결의한다.

1.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를 결성한다.
2. 불교 자주성 침해사례 수집과 대국민홍보를 전개한다.
3. 불교 자주성 수호를 위한 전국사찰 시국법회를 제안하며 적극 동참한다.

(가칭)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treebuddha**

후원계좌 : SC제일은행 107-20-196209 김용문(불교자주실천)